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CTP 등 인쇄기기 공급

20년 연륜으로

인쇄기술 발전 선도

에스앤아이시스템즈(대표 김병환, www.snitech.co.kr)는 사진제판 및 인쇄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기업이다. 비록 회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7년으로 10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에스앤아이시스템즈 임직원들의 맨파워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임직원들이 인쇄산업에 뛰어든 것은 20년에 달하고 있다.

현재 에스앤아이시스템즈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군은 일반 PS판 CTP, 워크플로, 양면디지털 교정기, 농도계, PS판 자동현상기, 레이저조각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망라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는 만큼 A/S부문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등, 상대적으로 생소한 외국장비여서 설치, 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는 염려를 갖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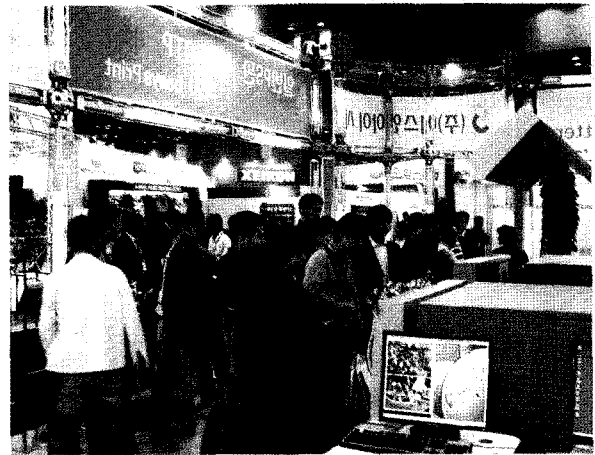
그 이유는 에스앤아이시스템즈 CTP부문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데, 전직원이 자사 제품군에 대한 기계적 이해도가 매우 높을다가 전원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따른 결과이며 실질적인 기술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이해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인쇄산업의 매커니즘에 대한 인식과 공급제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 일선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고객들이 체감하는 A/S의 소요시간, 만족도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인적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에스앤아이시스템즈의 장점이 드러나지만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도 차별성이 돋보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일반PS판(소부판)을 사용하는 독일 basysPrint사의 UV-setterCTP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데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UV방식 일반PS판의 우수성 적극 홍보

바이올렛판과 서멀판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CTP시장의 현실에서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기술적인 향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추가 중량을 달고 경주하는 핸디캡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주력 제품군으로 UV-setter CTP와 일반PS판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등한 환율이 UV-setter CTP장비의 판매에는 고가인 장비의 추가적 가격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대량으로 CTP판을 소모하는 중대형 인쇄사 상대로는 운용비용면에서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갈수록 고객들이 운용비용 절감에 대한 매력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혁

- 1997 . 11 에스앤아이엔지니어링 설립
- 1997 . 11 프랑스/EUROCORE S.A (High-End DrumScanner Interface-Link Kit) 대리점 체결
- 1998 . 3 일본/SHIMASEIKI MFG. LTD (High-End Design Work-Station) 대리점 체결
- 1998 . 3 일본/hara Electronics Ind.(Digital 투시/반사/ PS판 농도계) 대리점 체결
- 영국/highwater Design Limited (TorreNT HQ RIP, CIP-3, Work-flow) 대리점 체결
- 2000 . 6 일본/ TOYO INK MFG, Co., LTD (UVsetterCTcP/일반 PS판 용) 대리점 체결
- 2000 . 9 KIPES 2000 전시회 출품
- 2001 . 10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 법인 전환
- 2001 . 11 이탈리아/EGRAF (PS판 및 Thermal 현상기)와 대리점 체결
- 2002 . 5 KIPES 2002 전시회 출품
- 2002 . 8 독일 /BASYSPRINT GmbH (일반 PS판 전용 CTP/ UVsetterCTcP) 대리점 체결
- 2003 . 3 덴마크/TECHAGE (하리포미용 양면 교정 Solution) 대리점 체결
- 2005 . 9 영국 ALE(레이저 조각기) 대리점 계약 체결
- 2005 . 9 사무실 이전(충무로에서 일산 백석동으로 현재 소재지)
- 2006 . 12 독일/WETZEL GmbH(레이저 직접 조각기/동,철) 대리점 체결
- 2007 . 5 중국 Masterwork Graphics Equipment, Ltd사와 금박인쇄기 대리점 체결
- 2008 . 9 KIPES 2008 전시회 출품

회사 측은 UV-setter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반 소부 광원(UV-LAM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PS판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판재(소부PS판)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경험과 노하우 그대로 살릴 수 있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작업 비용의 절감률이 40~50%에 이르고 소부PS판과 현상액등이 동일하다는 점도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여준다고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UV-setter CTP의 장점을 고객들이 알게 되면 시장점유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으로 레이저방식에 비해 유지 관리비가 최저 수준이며 현상액의 Ph농도(7~8)가 가장 낮기 때문에 교체주기가 길며 청소의 빈도수가 현격히 길어 생산성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S판 특성 그대로의 평판형 작업 방식이어서 고장 발생 빈도가 낮으며 진동에 대한 내력이 강해서 설치 장소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의 호응 높아질 것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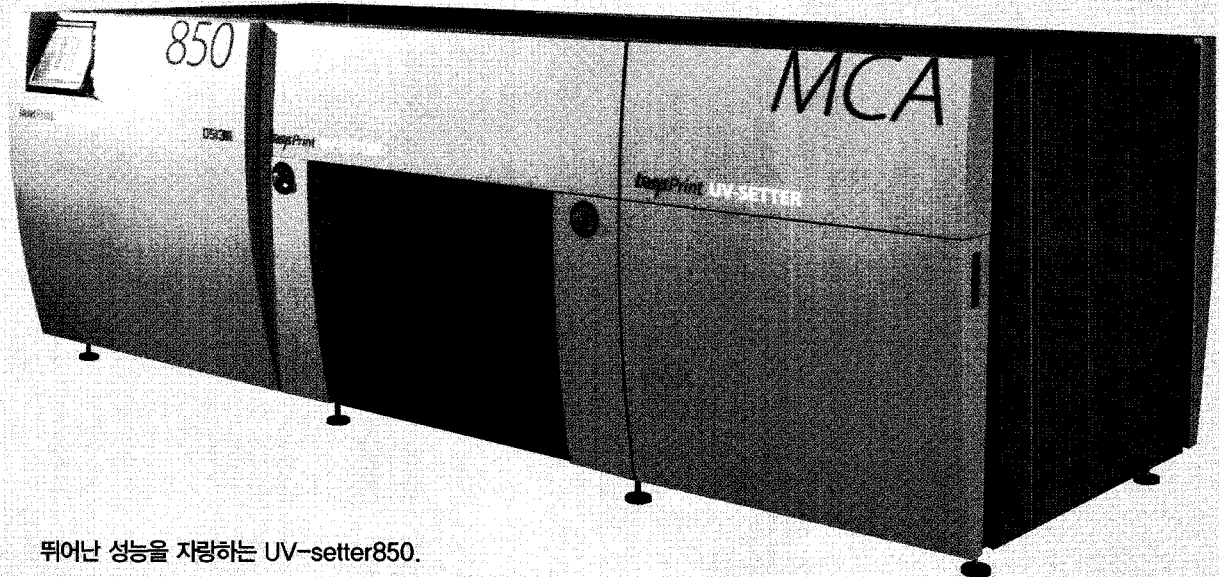
2009년 CTP시장 어려움 속에도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국내 CTP시장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환율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급등에 따른 부자재가격과 제작단가의 상승

으로 올해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KIPES2008전시회에서 일반 판을 사용하는 UV-Setter CTP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인식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으며 장비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등 시장의 흐름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형 제품들이 시중에 내놓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인쇄품질도 낮았으나 이제는 그 차이를 거의 없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일반판을 사용하는 UV-setter의 시장점유율이 국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으며 일반판과 CTP판의 가격이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UV-setter CTP의 보급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는 과거 전문가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일반판과 CTP판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다 보면 UV-setter CTP 시장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일반 판 사용, 원가절감에 탁월한 UV-setter CTP850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공급하고 있는 베이스프린트는 많은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일반 판을 사용할 수 있어 재료비가 저렴하여 제작원가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최대 제작원가의 40~50%에 이르는 절감을 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UV-setter850. 완전 자동형이며 레이저를 5년간 무상 A/S하고 있다.

현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공급하는 소부판은 주요한 특성들을 (내쇄력, Dot-Gain/망점 퍼짐율, 습수율, 인압, 보판 등) 그대로 갖고 있으며 작업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함으로써 고품질로 생산,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부PS판 및 현상액과 동일해 자재의 구매와 관리의 일원화로 작업 효율을 높여준다.

UV-setter CTP850은 평판식임에 불구하고 PS판 작업이 용이하며 고장 발생빈도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완전 명실형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A4 사이즈에서 4절형, 전지형, 운전형, 대형 포맷형별 수동, 반자동, 전자동형 등 특수 사이즈(1535×3170mm)까지 다양한 포맷의 작업에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용도에 쓰임새가 있어 오프셋인쇄, 스크린 인쇄, 플렉소인쇄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온도 및 습도와 빛에도 강한 내구성이 있어 판재 관리가 손쉽다. 0.15~0.5mm 두께의 PS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토 포커싱 기능을 채용해 PS판의 상태에 따른 최적 적응력을 자랑한다. 또한 DMD에 의한 사각스팟 방식을 채택해 저해상도에서도 샤프한 망점을 재현하고 잉크 전이성이 뛰어나 인쇄압부의 질감 재현력이 좋다.

재료비 절감과 뛰어난 색보정력 양면 디지털 교정 SYSTEM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공급하고 있는 Spin-Flow & SpinJet 5000/5500은 인쇄전에 완벽한 가제본을 할 수 있다(SpinJet- 5500). 인쇄와 동일한 수준의 색보정 및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면 인쇄와 교정이 가능하다. 인건비 및 재료비(50%)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며 편집 및 터잡기 확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양면 디지털 교정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하였으며 시중 HP 플로터의 사양 그대로 사용감재, 잉크를 사용해 인쇄 속도 및 품질에서 뛰어나다. 단면 및 양면 프린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센터(0.5mm), 코너(1.0mm)에서 정교한 편맞춤을 실행할 수 있다. 커팅, 뒤집기, 뒷면 인쇄 등 작업동작의 전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모델은 안정된 성능을 인정받아 국내 유명 인쇄회사에 납품한 실적도 갖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인쇄업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 에스앤아이시스템즈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7년이지만 저는 90년대 초반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마치 학교나 입시 학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행군이었는데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시간전에 1시간 이상 교육 받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은 흔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보니까 인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을 뿐 흐름을 보는 안목이 생기더군요. 그 이후 컨설팅과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인쇄산업의 디지털화와 진전되면서 현재처럼 디지털인쇄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을 변동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또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경제전문가도 아닌데 특별한 전망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급등락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더 심해 지지 않는다면 환율이 서서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마치 우산장수와 짐꾼 장수를 둔 어머니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저희가 공급하는 장비가격이 더 크게 오르지만 CTP판재의 가격경쟁력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 장비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면서 이전에 고객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KIPES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난해 KIPES에 참가해 관람객 및 상담 고객들의 인식이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전시회에 적극 참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십시오.

모두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구매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장비와 서비스를 적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